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개봉구 노모님과 성도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2026년도를 새해를 시작한지 벌써 4번째 주일이 지났네요.

저희는 후원과 그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현지인들이 아침 모임에서 그다 하던 중에 <라헬> 자매가 "튀르키예 지역에 그회가 없는 지역에 그회를 세워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이 기도가 저희 모임에 주님께서 주신 제목으로 알고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계획이 여러번 좌절되자 그는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다리던 중에 로마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하는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야 말로 로마서가 기독교 시기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면 여러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렸듯이 이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다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시기 열매가 저희 생각대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한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다를 부탁드리며 간추린 그다 제목을 드립니다.

<간추린 그다 제목>

1. 매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로마서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8-9 명 참석하며 순서대로 간증을 나누고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현지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2. <나지레> 자매의 아들 <에드레>가 억울하게 마약 운반 죄로 수감된 구치소에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출소 날짜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지쳐있는 그 청년을 위해 현지 성도님들이 현금을 모아서 구치소에 면회를 가는 편에 보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지레> 자매는 동부 <디알바클> 지역에 사는 언니 <멜잔>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어 최근에 병 문안을 하고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복음을 들은 언니의 구원을 위하여
3. <페드바> 자매가 눈 길을 걷다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이 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쾌유를 위해
4. 저희를 만난지 30여년 만에 작년에 주님을 영접한 <캐년> 형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독일에 있는 딸 집에 방문 중인데 혼자 있는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5.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개봉 그 하나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2026년 1월 27일
복음의 불모지 소아시아에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 김, 사라 김 올림